

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 ☎ 사무실 857-8541 팩스 857-8549	미사시간	주일	토요일 주일 : 16:00 (유·초등부 소성전), 19:00	
			06:30 (새벽),	10:30 (교 중)
			10:00 (중·고등부 소성전)	12:00 (낮)
			19:00 (청 년)	
		평 일	06:30 (새벽), 19:00 (저녁), 목요일 10:00	
예비자 교리			일요일 오전 09시 / 화요일 저녁 8시	
유 아 세 례			토요일 오전 11시 (사무실 문의)	
연령회 회장			우성식 바오로 010-2899-4654	

● 모임

단체명	일시	장소
위령봉사회	8월 04일(일) 11:40	강당
M.E.	8월 04일(일) 11:50	6교실
제대헌화회	8월 06일(화) 10:30	2교실
사도들의 모후 Cu.	8월 11일(일) 12:00	강당
우리어머니 Cu.	8월 11일(일) 11:40	식당

●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시간

8/14(수)	19:00 (특전)
8/15(목)	06:30, 10:30, 19:00

* 대축일 봉헌금 있습니다

● 전례교육 3차 안내

- 일시 : 8월 04일(일), 오후1시, 강당
- 강사 : 주임신부님
- 대상 : 본당 모든 성가대 단원
- * 토요일, 교중미사, 12시미사, 청년성가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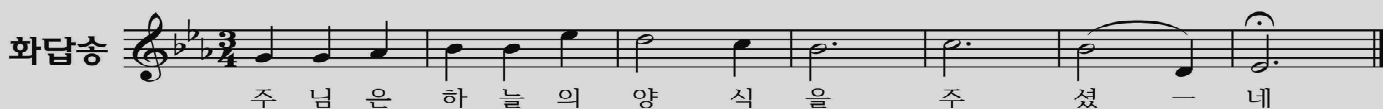
● 복사단 여름캠프

- 일시 : 8월 04일(일)~06일(화), 2박 3일
- 장소 : 강릉 옥계성당
- 문의 : 박미옥 도미니카(010-5736-1132)
- * 복사단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청년 여름캠프

- 일시 : 8월 31일(토) ~ 9월 01일(일), 1박 2일
- 장소 : 안산시 대부도
- 참가신청기간 : 7월 14일(일)~ 8월 18일(일)
- 비용 : 1인 3만원
- 입금계좌 : 카카오�뱅크 3333-1297-19040(신연미)
- 문의 : 최소현 로사(연합회회장 010-5735-5140)

성가번호 ♪ 입당 : 1 ♪ 예물준비 : 212, 217 ♪ 영성체 : 179, 163 ♪ 파견 : 6

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(※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● 구로3동성당 여름이야기

무더운 여름, 시원한 여름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.

"우리가 서로 사랑하면,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."

- 첫번째! 음식나눔 (시원한 냉모밀)
 - 일시 : 8월18일 일요일 교중미사 후 식당
- 두번째! 영화나눔 (오두막)
 - 일시 : 8월23일 금요일 저녁미사 후 대성전
- 세번째! 음악나눔 (음악피정과 미사)
 - 일시 : 9월7일 토요일 오후6시 대성전
- * 음악피정 시작 토요일특전미사(7시)로 마무리

● 알림

- 살레시오와 꿈(CUM) 후원미사 8월5일(월) 10:30

● 다음 주일(8/11)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

국수잔치	7, 8월 없음	청소	20구역
-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● 우리들의 정성(7월 24일 ~ 30일)

교무금	7,517,000원
주일헌금	5,072,000원
감사헌금	심진보25만원 오성환10만원 정영자 1만원 이석구30만원 최순애10만원 심점순10만원 박상덕10만원 익명10만원 익명10만원 김향자10만원

●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일	해설	복사	독서
8/04	황원선	심재순 김영균	안상록 권태희
8/11	박혜선	조홍환 도현만	임종윤 손정주

● 성체 분배자 명단

월일	토요주일	06:30	10:30	12:00
8/04	최창열	하재민 황태영	김광수 김영배	김인기
8/11	박승환	박용환 박형순	손상민 옥윤필	오광운

새 '미시 전례시 놓지침(2002년)' 에 따른 김주린 미시 전례 지침

부활의 기쁨이 살아나도록

3.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이 도입한 새로움 가운데 하나는 <주례자>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. 그래서 주례자석을 눈에 띄는 위치에 두도록 하였다. 이것은 물론 전례 집전자가 그리스도를 체현하고 있다는 신학적 바탕에서 이루어진 배려이다. 따라서 전례 집전자는 그 몸가짐 전체로써 회중의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고, 회중이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몸가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 앞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<합장>의 자세이다. 이 자세는 언제 어디에서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종교적 자세이며, 그 자체가 본인에게나 함께 있는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을 향해 몸을 모으고 성령의 움직임에 가장 예민하게 감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몸가짐이다. 각종 형태의 종교 심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게 스며들어 있는 아시아,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합장이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. 그렇기 때문에 주례자는 물론이고 공동집전 미사 때에는 모든 사제가 꼭 반듯한 합장의 자세를 유지함으로써,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하느님 백성 전체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위를 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그리고 회중도 합장을 하게 함으로써,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경건한 분위기 자체가 상승 작용을 하여 모두 하느님 성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그리고 주례자와 회중이 교대로 하는 <기도>에서도 참석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'목소리'를 모으고, 보통 때보다 한 단계 더 높여 충분히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, 부활한 삶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. 목소리가 너무 낮거나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면 전례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없게 된다.